

세법개정 제외된 '종부세'...한숨돌린 광주·전남 지자체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들쭉이는 집값에 결국 종부세 개편 보류 지난해 종부세 감면에 광주 609억·전남 2719억원 줄며 재정 타격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기쁨이나 어려운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종부세 세수 전액이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여야가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면서 지역 자치단체들의 재정 타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6월21일 1면>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종

부세 개정이 제외됐다. 앞서 여야가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데다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를 대폭 감면한 이후 지자체에 들어가는 부동산교부세가 크게 줄어들어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다. 종부세는 지방에 일반 재원으로 전액 교부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 세수도 줄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지난해 종부세 대폭 감면 후 광주시의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1787억원)보다 609억원 줄어든 1178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27억원, 서구 112억원, 남구 135억원, 북구 132억원, 광산구 102억원가량이 줄어든 수치다. 전남지역도 2022년 대비 지난해 2719억원이 줄어 들었다. 전남 22개 지자체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0억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흥군은 137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해남군은 133억원 줄었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부동산교부세로 확보한 금액만큼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난을 우려했던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당분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 제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종부세 개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종부세 개편 수위는 상속세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안의 양대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고 여당·대통령실은 종부세 전면 폐지까지 언급한 바 있다. 종부세가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만큼 당장 폐지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우세했다. 이 때문에 '징벌적 과세 정상화'라는 기조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무거게 실렸다.

종부세 개편안이 제외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 우려는 잠시 멈추게 됐다. 서울에서 종부세의 절반을 내고 있고,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의 약 50%가 지역으로 돌아가는 만큼 보유세인 종부세의 폐지나 완화가 지방 재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는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아 이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미국 기술주 폭락 '후폭풍'...코스피 2710선 후퇴

코스닥 6개월 만에 800선 내취

코스피가 25일 간밤 미국 기술주 급락에 휘청이며 2,710대로 내려섰다. 코스닥지수도 약 6개월 만에 증가 기준 800선을 내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8.06포인트(1.74%) 내린 2,710.6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7.42포인트(1.36%) 내린 2,721.29로 출발해 장중 2,703.86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6원 오른 1,385.4원을 나타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2엔대 후반에서 등락하며 약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장보다 3.28% 하락한 37,869에 장을 마감하며 8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0.45%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천 742억원, 1천56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이날 외국인 순매도액은 지난 5월 31일(1조 3천400억원) 이후 2개월 만에 최대다.

개인은 8천250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9천679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6.96포인트(2.08%) 내린 797.29에 장을 마치며 지난 2월 1일(798.73) 이후 약 6개월 만에 증가 기준 800선을 내렸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48.06포인트(1.74%) 내린 2,710.65에,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96포인트(2.08%) 내린 797.29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광주 아파트 가격 12주 연속 하락

전남 6주 연속 하락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또 다시 하락했다. 12주 연속 하락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7월 4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7월22일 기준)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 대비 0.04% 하락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 1주부터 이번 주까지 무려 1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광주는 5개 자치구 모두 매매가격 하락을 기록했는데 광산구가 0.1% 줄면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구(-0.05%), 서·남구(-0.03%), 북구(-0.01%) 순이었다.

전남은 이번 주 0.02% 하락하면서 6월 4주부터 5주 연속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지난 주 보합세였던 광주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주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광주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 전남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광주와 전남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하락한 것과 달리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매매와 전세 모두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했다. 서울의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3% 올랐고, 인천(0.14%)과 경기(0.08%)도 증가를 이어갔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서울(0.18%), 인천(0.2%), 경기(0.12%) 등 수도권 전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

국민연금 광주본부, 광주경총과 근로자 노후 교육 협약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25일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광주경총은 광주를 비롯, 나주·담양·장성·함평·영광·화순·곡성·구례지역 중소기업 2300여 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기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시 5개구와 전남지역 해당 8개 시·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장이 함께 참여해

광주경총과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 등을 광주경총 회원 기업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회원사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과 상담 서비스 등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올해 하반기 광주·전남 지역 직장인 대상 국민연금 바로알기 현장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전남 중소기업지원협의회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논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5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성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관 간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 교류하는 단체다.

이날 회의에서 광주·전남지방중기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과 관계기관과의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발표에 이어 참석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

책모델' 제도를 소개했고,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인력 복무관리 및 보충역 채용 사항에 대한 지역기업 인내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항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경제도시 1번지 회복과 상생, 그리고 도약의 북구'를 주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북구정의 노력과 정책을 설명하고,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며 "지자체와의 우수한 협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10.65 (-48.06)
↓ 코스닥	797.29 (-16.96)
↓ 금리 (국고채 3년)	3.024 (-0.022)
↓ 환율 (USD)	1380.55 (-3.25)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